

세계의 등 서울의 밤 밝히다

세계등축제 청계천서 열려... 한류 등 4개 테마



세계의 등들이 서울의 밤을 환상적인 빛으로 수 놓았다.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함께 추진하는 '2010-2012 한국방문의해-서울과 함께'의 연계 행사인 '세계등축제(Seoul Lantern Festival)'가 11월 11-15일 청계천(청계광장-삼일교)에서 열렸다.

'류(流)'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11월 11일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펼쳐진 '2010-2012 한국방문의해-서울과 함께' 개막식의 점등식을 통해 5일간 서울의 밤을 밝혔다. '교류(交流)존' '원류(源流)존' '한류(韓流)존' '일류(一流)존' 등 4개의 테마로 구성된 이번 축제는 세계 20여 개국에서 공수해온 다양한 등이 청계천 물줄기를 따라 빛을 밝혔다. 한마음선원, 조계사, 부산연등축제, 진각종 등 불교를 대표하는 국내 등과 더불어 일본의 대나무등, 우산등, 중국의 연꽃사자등, 대만 가오슝의 관제묘등이 참여했다. 그밖에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선보인 전통문화등과 설화 및 전설의 동물등·한류열풍을 일으킨 한류스타의 캐릭터등·IT강국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디자인등 등 다채로운 등들이 설치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들을 보면 야경이 뛰어난 곳들이 많다"며 "이번 '세계등축제'를 통해 매력적인 도시 서울의 이미지로 인상 깊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화려한 등과 더불어 소망등 만들기, 유등체험행사, 문화공연 및 이색퍼포먼스 등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와 행사들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은정 기자

송헌 전기만 문도 불교조각전 열어

12월 1일까지 서울무형문화재전수회관 기획전시실서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전기만 선생이 11월 18일-12월 1일 서울무형문화재전수회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승전 제1회 송헌 전기만 문도 불교조각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전기만 선생의 석가 삼존불과 선생의 이수자 및 전수생 16인이 16나한상을 제작해 조선시대 전통 불교 목조각 양식의 진면모를 보여준다. 또한 제작자들의 개별 작품들도 함께 전시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석경 스님은 전기만 선생의 작품에 대해 "전기만은 오랫동안 조각기술을 연마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심오한 경지에 도달했다"며 "그의 불상(佛像)은 전륜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보면 거룩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전기만 선생은 81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심으로 작품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선생의 전공은 조선조 불상으로, 조선 불상의 특징은 서민적인 미(美)를 자랑한다.

이번 전시는 흥시처럼 무르익은 전기만 선생의 작품과 전통문화 계승에 주력하는 제작자들의 작품을 현대적 정서로 조심스럽게 모색하는 자리로서 한국 불교조각의 다채로운 면모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02)3011-2163

이은정 기자

동양과 서양, 이미지로 조우하다

모나리자·반가사유상 미소 한 자리에 28일까지 필립강갤러리서 김종식 개인전

동서양의 미소를 대표하는 모나리자와 반가사유상 두 이미지가 만났다. 수려한 몸매로 심플한 절제미의 극치를 보이는 조선 백자는 현대적 색시 아이콘인 마릴린 먼로와 어울렸다.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들이 만나 영상화상을 이룬 김종식(48) 작가의 개인전이 11월 28일까지 서울 신사동 필립강갤러리에서 열린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사람과 물질을 융합시켜 색다른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김종식 작가는 프랑스로입학교를 졸업하고 파리와 국내를 오가며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해왔다. 그런 김종식 작가의 이번 전시는 '이중주의 하모니'다. 전시 제목처럼 그의 작품은 여러 유표가 만나 하나의 음악이 되는 것처럼 대비되는 이미지가 만나 제3의 이미지로 태어난다.

전시 대표작 '마주보는 오드리 햅번'에는 세계적으로 사랑받았던 배우 오드리 햅번과 또 하나의 익숙한 그림이 함께 배치되었다. 바로 반가사유상이다.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을 쉽게 알리고 싶었죠. 그래서 등·서양의 이미지를 함께 작품에 등장시켰습니다."

반가사유상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오드리 햅번의 모습은 의외로 낮설지 않다. 작품속 오드리 햅번의 눈빛은 신심 가득한 불자들의 눈빛만큼이나 파스하게 느껴진다.

김종식 작가는 "이러한 시도가 작년 파리 전시회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전통을 알리고 이해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반응들이 상당히 좋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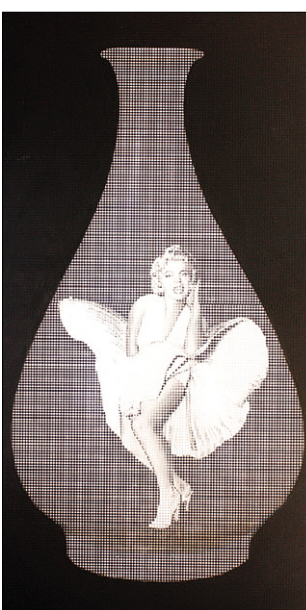
대비되는 두 이미지가 만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김종식 작가만의 독창적인 작업 기법 때문이다. 캔버스에 이미지를 그린 후 구멍(dot) 뚫린 종이를 붙이고 그 위에 다시 다른 이미지를 그린 후 종이를 떼어내면 구멍 뚫린 부분만 이미지가 남게 돼 독특한 시각적 세계를 보여준다.

이런 독창적인 기법의 어울려 탄생된 새로운 이미지는 팝(pop)적인 느낌이 강해 또 다른 긴장감을 유발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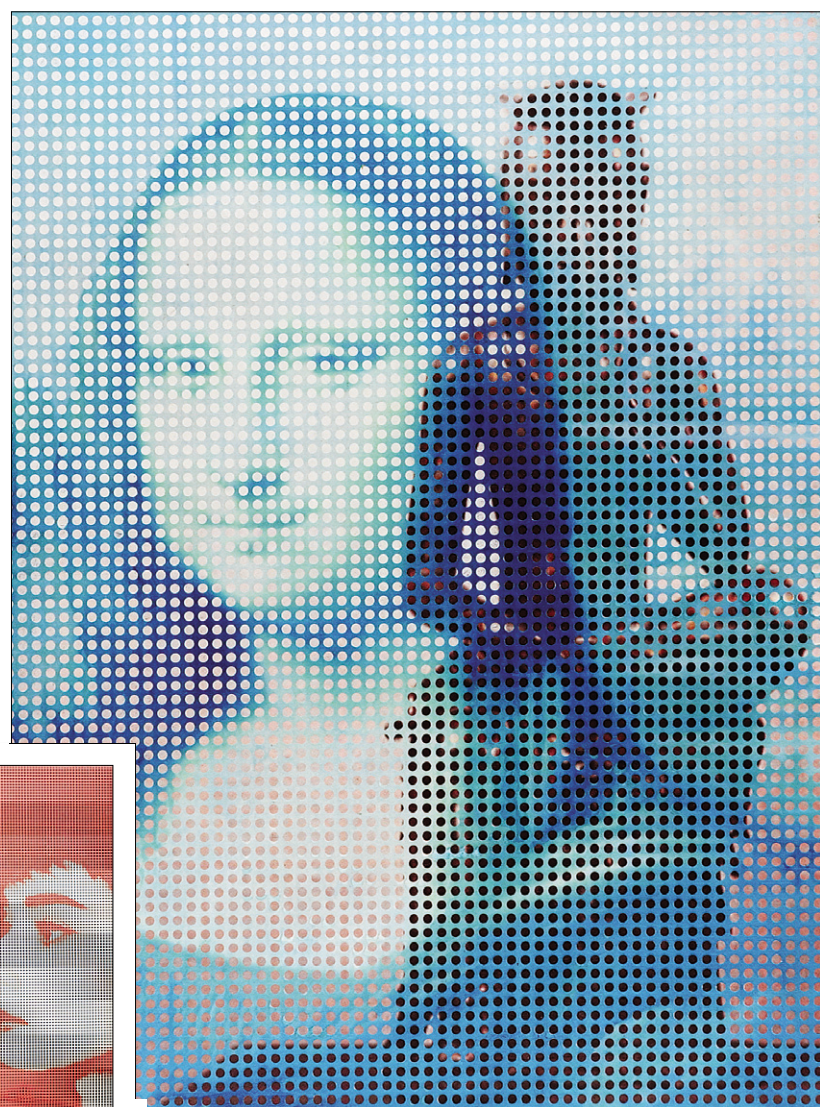
"작품에 등장하는 원(dot)은 공, 우주, 해, 달, 별, 세상을 상징하고 눈과 렌즈 같은 시각장치를 상징하기도 하죠. 원은 자동성, 운동성을 내포하고 있어 긍정과 음울을 표현합니다. 저는 원 속에 모든 사물과 움직임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둥근 원을 보면 엄마의 뱃속에 있는 것만 같아 마음이 편안합니다."

불교에서의 '원'은 선의 안과 밖을 분별하지 않는 절대적인 크기다. 중국 선종의 3조 승찬 스님은 <심심명>에서 "지극한 도는 참으로 원융하고 장애가 없어 둥글기가 큰 공과 같다"고 말했다. 김종식 작가의 작품에는 오드리 햅번, 마릴린 먼로 같은 색시(sexy)로 표현되는 세속적 아름다움과 모나리자·반가사유상·백자 등 전통적 아름다움이 차별을 여의고 혼재해 있다.

김종식 작가는 "종교와 문화를 초월해 다양한 모습을 작품에 담고 싶었다"며 "떠돌다 만난 형상, 집합체, 생명, 움직임 그 자체가 나의 그림이며, 그런 원 속에 담긴 그림들은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둥근 수레바퀴가 돌아가듯 무상의 깨달음을 말해주는 김종식 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하며 조화와 관용의 미를 이번 전시를 통해 느껴보자. (02)517-9014-5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종식 작가의 작품 '모나리자와 반가사유상' '마주보는 오드리 햅번' '마릴린 먼로와 백자병'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종식 작가의 작품 '모나리자와 반가사유상' '마주보는 오드리 햅번' '마릴린 먼로와 백자병'

조영근 선생 고희음악회 개최

21일 역사문화기림관 전통공연장서

불교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25년간 음성공양을 해온 불교 원로음악인 조영근 선생이 11월 21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고희음악회를 개최한다.

학림사, 석림사, 보광사, 법장사 합창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공연에는 조영근 선생이 발표한 창작찬불가를 엄선해 공연할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에는 소프라노 박소림, 테너 한정일 등이 학림사, 석림사, 보광사, 법장사 합창단과 함께 출연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조영근 선생은 교회음악회 공연에 앞서 "결코 짧지 않은 25년이라는 세월동안 불교음악을 위해 열심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다"며 "앞으로도 불교음악인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로서 이번 교회음악회를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변역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순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불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둑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침권의 액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리게 된다.

수월 관음도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이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살문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세상사는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집안식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에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풍류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관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원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사업장의 범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경기가 너무 어려워, 장사가 너무안되, 문물답아 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복도 많고 불경기도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장사하는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범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집기를 들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일본의 경

우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친 금강삼고저를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범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집기를 들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일본의 경

■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석당, 기돈,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지홍보,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가운, 복관점, 관공소초석당, 핸드폰점, 편의점,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병안점,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 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인한환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툴릴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